

기술문에서 우리말 숫자 쓰기

권성규[†]

계명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

Writing Korean Numerals in Technical Writing

Kwon, Sunggyu[†]

Professor,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utomotive Engineering, Keimyung University

ABSTRACT

There is a problem that some spoken words are not consistent with the written words when Arabic numerals in Korean language are read. Since some rules for reading the Arabic numerals are not clear, the numerals should be read carefully by recognizing the position of the numbers in sentence, the relationship of the numerals with measurement nouns and other writing elements, and context. In view of technical writing, this work is to appreciate some rules for writing Korean numerals in place of Arabic numerals by studying the works regarding numerals, classifiers and measurement nouns.

Keywords: numerals, Arabic numerals, Korean numerals, measurement nouns, technical writing

1. 서 론

지금은 80톤과 110톤, 2대의 프레스로 2사람이 압인과 굽힘 작업을 따로 한다. 그렇지만 둘 다 프레스에 의한 작업이기 때문에, 순차이송 다이 세트를 이용하는 1대의 트랜스퍼 프레스로 2공정을 통합할 수 있다. ... [예문]

두 문장으로 된 이 예문에 숫자가 여섯 개 적혀 있다. 그 중에서, '2'의 읽는 음(音)은 '이'이지만, '2대'는 '두 대'로 읽고, '2사람'은 '두 사람'으로 읽는다. 마찬가지로, '1대'는 '한 대'로, '2공정'은 '두 공정'으로 읽는다.

이 예에서 보면, 개별 아라비아 숫자를 읽는 음과 문장에서 그 숫자를 읽는 음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문장에 있는 어떤 숫자들은 음으로 읽지 않고 뜻으로 읽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김영식(1973)은, 그 당시 초등학교 교과서, 일반도서, 일간신문 등에서 산용 숫자(아라비아 숫자)와 관련한 읽기, 쓰기에 상당한 혼선이 있을 뿐 아니라 “언(言)과 문(文)이 일치하지 않는” 즉, “산용 숫자의 표기와 읽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21살'은 '스물한 살'로 '9시까지'는 '아홉시까지'로 읽어야 하는데, 굳이, '21살'과 '9시까

지'로 쓰는 등을 “산용 숫자의 무원칙한 남용” 문제라 하였다. 그러면서 “산용 숫자 표기의 통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조룡수(1992)는 단위명사와 결합된 아라비아 숫자 읽는 방법을 15가지 경우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또 “숫자읽기 지도를 중시하지 않아, 예를 들어, '1976년 1월'을 '일구칠륙년 일월'로, '아침 8시에'를 '아침 팔시에'로 읽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교재에서 숫자와 수학기호 등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숫자를 옳게 보고 바르게 읽고 맞게 쓰는” 읽기 지도가 중요하다.

어느 신문(조선일보, 1992)의 '방송말 신문글' 제목의 기사에서는, “숫자 1, 2, 3, 4는 그 발음이 일, 이, 삼, 사 뿐인데도, 2살, 3곳, 4잔 등으로 많이 쓰고 있다. 시각적으로 효과를 노려 수 개념의 이해가 빠르게 하려는 노력으로 보이지만, '2살'로 써놓고 '두 살'로 읽어달라는 것은 무리이다.”라고 하고는, “우리말에 숫자 1, 2, 3, 4를 '하나, 둘, 셋, 넷'으로도 발음한다는 무슨 법칙이 생기지 않는 이상, '삼(3) 사람', '사(4) 마리', '오(5) 묶음' 이라고 읽도록 쓰지 말아야 한다.”

한효석(1995)은 “우리말에서 아라비아 숫자를 읽는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 숫자 1부터 10까지 글로 쓰면,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이다. 1은 '하나'와 같은 뜻이며, 2는 '둘'과 같은 뜻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1을 '일'로 읽으라고 하지 '하나'로 읽는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음대로 '일, 이, 삼, 사, 오,...'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뜻으로 새겨야 하는

Received January 4, 2011; Revised March 4, 2011

Accepted March 10, 2011

[†] Corresponding Author: cmack@kmu.ac.kr

것은 우리글로 적으면 된다.”

또한 그는 (한효석, 2008)에서 “우리말은 입으로 말하는 것과 글로 쓰는 것이 같다고 ‘언문이 일치하는 언어’라고 한다. 즉, 말하는 것을 그래도 쓰면 된다. 그러나 아라비아 숫자를 글로 쓰고 입으로 읽을 때는 글과 말이 따로 논다. 예를 들어 ‘3’을 ‘삼’으로 배우지만, 관례에 따라 ‘삼, 서, 세, 석’ 따위로 새겨 읽어야 한다. 그리고 ‘17명’은 ‘십칠 명, 열일곱 명’으로 읽을 수 있는데, ‘17살’은 ‘열일곱 살’로 읽어야지 ‘십칠 살’로 읽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남들이 숫자를 정확하게 읽기를 바라면 쓰는 이는 숫자를 아예 한글로 적는 것이 좋다. 즉, ‘엽전 15냥’ 보다 ‘엽전 열닷 냥’이 낫다.”

지금까지는 여러 자료들에서 숫자를 읽는 문제와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숫자를 쓰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그런 문제들과 관련한 이론 국어학 분야의 몇몇 자료들을 정리한다.

채완(1983)은 “국어의 수사, 분류사²⁾, 그리고 수사와 분류사의 결합인 수량사구(數量詞句)의 특성을 살펴본 뒤 수사가 명사, 분류사와 함께 수량사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성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수사가 10 미만의 수에 해당될 때는 분류사가 한자어일 경우에도 고유어 수사가 選好되며, 반대로 수가 커질수록 한자어 수사가 選好된다. 또한 분류사가 서구어 차용어일 때는 수의 크기에 관계없이 한자어 수사만 선택된다.”

또한 그는 (채완, 1990)에서 수량사구의 구성에 있어서 명사의 기능이 분류사의 호응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하고, “명사의 기능에 따라 衣, 食, 住生活 관계, 文字生活 관계, 기계·기구류에 관련된 분류사, 행위·사건 명사에 연결되는 분류사, 모양에 따라 선택되는 분류사”로 나누었다. 그리고 “특히 의생활과 식생활에 관련된 분류사의 수가 압도적”인 것은 “그에 관련된 사물이나 동식물이 생산이나 거래 등을 위하여 썸의 대상이 될 필요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 하였다.

김광해(1998)는 “국어의 수사가 실현되는 양상을 관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지적해 두어야 하는 사항은 고유어계 수사와 한자어계 수사가 어떠한 규칙에 따라 실현되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라 하였다. 사람의 수를 세는 예를 들어, “국어의 수사는 많은 경우 단위를 나타내는 수량사와 더불어 실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어의 수사를 사용할 때 고유어계 수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한자어계 수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규칙보다는 개별 수량사에 따라 관습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수밖에 없다.”

강영석(2009)은 “국어의 수량 표현과 관련하여 앞으로 논의해야 할” 많은 과제 중에,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의 영역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 영역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요인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강영석, 2010)에서는 “수사를 기록할 때는 한글로 적는 경우도 있지만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했을 때 읽는 방법으로는 고유어 수사로 읽는 경우와 한자어 수사로 읽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어떤 규칙을 가지고 구분하는가?”, “수량 단위명사와 결합할 때 단위명사의 쓰임도 고유어계와 한자어계, 또 외래어계가 있으며 어떤 결합규칙이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론 국어학 측면에서의 수사, 분류사 및 수량 표현에 관한 연구 외에, 숫자 관련 말이나 문자 자료를 기계로 인식하거나 디지털 정보로 생성하는데 관련된 주제들이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유재원(1997)은 기계가 자연어를 처리하는 일을 고려하여, 의존 명사의 하위 부류를 위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수관형사로 다루었던 낱말들을 수사로 다루었다. 또, “십 미만의 수에서는 고유어 수사 체계가 절대적으로 우세하지만, 이십 이상의 수에서는 한자어 수사가 고유어 쪽으로 침투해 들어와 점차 우세해지고 있다. 고유어 수사와 결합하던 수량 의존명사들도 이십 이상 되는 수와 결합할 때는 한자어 수사를 허용하는 일이 점점 더 빈번해 지고 있다.”

정영임 등(2002)은, “아라비아 숫자를 포함하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합성하기 위하여, 숫자 형태와 분류사 그리고 숫자가 나오는 문맥에 따라 숫자를 자동으로 문자화할 수 있는 전처리 규칙을 설정하는” 목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읽는 방식을 조사하여, 패턴화 되고 중의성이 없는 아라비아 숫자 읽기 구조를 제시하였다.

남지순(2006)은 “프랑스어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수량 표현을 한국어로 자동 번역하고자 할 때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한국어에 발달해 있는 수량 표현 단위명사 유형에 대

2) (채완, 1990)에서 보면, 분류사(分類詞, classifier)의 주된 기능은 셀 수 있거나(countable) 셀 수 없는 (uncountable) 명사의 썸에 관여해서 그 명사를 셀 수 있게 해 주는 것과 썸의 대상이 되는 명사의 의미론적 특성을 명세(specify)해 주는 것이다. 고유어(즉, 한국어) 수사에는 고유어 분류사가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한자어(즉, 중국어) 수사는 고유어 분류사와의 연결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고(예: 닭 오십 마리), 한자어 분류사는 고유어 수사나 한자어 수사 모두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혹 ‘량대명사’ 수량을 가리키는 낱말, 수량의 단위’ 라고도 불렀다. 분류사는 (조용수, 1992)에서 말하는 ‘단위명사’와 한글 맞춤법에서 말하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와 유사한 개념을 이해해도 될 것이다.

한 몇 가지 논의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단위명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목적을 위해 950여개가 되는 한국어 단위명사를 네 가지로 대분류로 하고, 그것들을 또 열두 가지 클래스로 하위분류하였다. 단위명사들이 “요구하는 수사의 성격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측량 관련 단위명사들 중 한자어나 고유어 단위명사들은 고유어 수사 계열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외래어 단위명사들은 한자어 수사 계열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선행 연구 자료들과 관련하여, 인쇄된 문자와 숫자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하는 일을 생각할 때, 문서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작성하는 일의 중요성이 새삼스럽다. 이런 관점에서 기술문을 쓸 때 숫자를 정확하게 쓰는 일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전국 공과대학들의 글쓰기 교육 추세와 공학 주제에 대한 글쓰기를 가르치는 공대 교수들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우리말 숫자를 바르게 쓰는데 대한 정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10 추계 공학교육 학술대회에서 ‘기술문을 위한 숫자 쓰기’(권성규, 2010)가 발표된 바 있다.

채완(2001)에 의하면, 영어의 수사는 국어에 비해 훨씬 넓은 대상을 포괄한다고 한다. Chicago(2003)에는 일반적인 저작물과 인문과 사회과학 분야의 학구적 저작물들을 위해, 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적을 것인지, 아니면 영어로 쓸 것인지에 대한 규칙들이 정리돼 있다. 그 책에는 ‘Numbers’라는 제목의 장에, 서론을 포함한 13개 항목에 대해 71가지 규칙이 다양한 예들과 함께 설명돼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글 맞춤법과 연구 주제 관련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효율적인 읽기를 고려한 기술문 쓰기의 관점에서, 아라비아 숫자 자리에 우리말 숫자를 적는데 적용할 규칙을 정리하였다.

II. 기술문(技術文)

이 논문에서 기술문은 technical writing을 말한다. Technical writing에서, writing이라는 영어 단어는 ‘쓰기’를 뜻하기도 하지만 ‘쓴 것; 문서; 서류’를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technical writing은 ‘기술글’ 또는 ‘기술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기술문 쓰기’ 또는 ‘기술문 작성’이라 할 수도 있다. 넓은 의미의 ‘기술문’은 ‘일과 관련한 실용문’ (Weisman, 1974; Riordan, 2002)이다. 그래서 ‘기술문’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업무 분야와 상관없이 자료나 정보뿐만 아니라 일과 관련한 자신들의 생각이나 마음이 막히지 않고 서로 트이게 할 목적으로 쓴 실용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술문’은 technical writing 외의 scientific writing, professional writing, business

writing, occupational writing, workplace writing, career writing 등을 통칭한다.

기술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보의 전달이고 다른 하나는 독자의 설득이다(Shееhan, 2010). 이런 기술문은 몇 가지 특성(Markel, 1988)을 가진다. 독자가 궁금해할 정보가 글에 모두 들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술문은 포괄적이어야 하고, 독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손쉽게 정확히 찾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술문은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문자들 사이에 띄엄띄엄 적힌 숫자가 독자의 눈길을 끄는 것이 기술문의 접근성을 좋게 하는 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숫자는 인문 분야 문서들에서 보다, 공학, 기술, 과학, 금융 및 재정 관련 기술문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다.

III. 읽 기

읽기 쉬운 기술문이 되도록 숫자를 바로 적는 관점에서, 읽기 좋은 글이 가지는 특성을 살펴보자. 먼저, ‘읽다’의 사전적 정의는, ‘[소리를 내거나 눈으로 살피어] 글의 내용을 알려고 살피다’이다. 따라서 읽기는 인쇄되었거나 씌어진 말들의 뜻을 해석하는 행위이다. 읽기는 눈의 움직임과 연관되는데, 독자가 페이지를 훑어볼 때, 시선은 멈추기와 움직이기를 번갈아 한다. 눈이 멈춘 동안 독자가 보는 단어들의 개수는, 시야 또는 인지의 범위를 결정한다. 시야가 넓을수록, 독자는 시선을 고정하고 더 많은 단어를 읽을 수 있다(WorldBook, 1990).

읽기는 얼마간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1) 인식(perception) (2) 이해(comprehension) (3) 반응(reaction) (4) 응용(application or use), 네 단계들의 과정이 종합된 것이다. 인식은 인쇄된 기호들의 의미와 발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독자가 시선을 옮겨감에 따라, 만약 낱말들이 친숙한 언어 패턴으로 배열돼 있다면, 독자는 한 번에 많은 낱말들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따로 떨어져 있거나 구나 절에 있는 낱말들, 둘 다를 인식하기 힘들다면 독자는 거의 이해를 못하여 읽기를 중단할 지도 모른다.

읽기 과정의 첫 단계인 인식과 관련하여, 가독성(可讀性, legibility)(이인석, 2009)은 글자나 문자를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씌어진 제재의 ‘읽기 편함’을 나타낸다.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는 글자체, 글자 크기, 글자 간격, 배경색, 글자색, 시야 거리, 조도 등과 같은 다양한 것들이 있다.

이독성(易讀性, readability)은 읽기 과정의 첫 두 단계인, 인식과 이해와 관련된 척도라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된다: (최천택, 1995) (1) Legibility, of either

the handwriting or typography, (2) Ease of reading, owing to the interest-value of the writing, (3) Ease of understanding, owing to the style of writing. 이 이독성은 ‘많은 양의 텍스트가 얼마나 빨리 읽힐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적 가독성이라 부르기도 한다(채형석, 2009). 이런 맥락에서, 가독성은 ‘판독성, 읽힘성, 혹은 식별성으로 짧은 양의 텍스트가 얼마나 쉽게 판독·인식되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독성은 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적을 것인지 아니면 말로 풀어서 쓸 것인지를 정하는 우선 원칙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Chicago, 2003).

이해는 인식한 것의 의미를 알아내는 어떤 사람의 능력이다. 이해의 정도는 낱말의 쓰임새와 낱말들 간의 관계를 알아차리는 글 읽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말’이라는 낱말은 여러 경우에 여러 의미를 가진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잦다.’ ‘말 가는데 소도 간다.’ ‘뜯어보지 말라고 하더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세 문장을 읽고, ‘말’이라는 낱말을 쉽게 인식하고, 다른 낱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각 문장의 ‘말’에 정확한 의미를 붙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가 인식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읽기의 성공 여부는 글을 인식하여 이해하는 독자의 능력뿐만 아니라 글이 얼마나 읽을만하게 씌어졌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글을 효율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글을 빨리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자들은 낱말들의 발음과 의미 그리고 낱말들이 적힌 (단락, 절, 구 및 문장들을 구성하는) 언어 순차들에 대해 어려움이 없을 때 씌어진 제재들을 이해한다. 독자들은 필자가 아이디어들을 진술한 수준, 즉 글을 적은 그대로의 수준에서 글을 이해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함축된 의미들을 생각해낸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읽기를 고려한다면, 기술문이 아무리 올바르게 정확하다 할지라도, 글의 스타일이 효율적으로 읽을 만하지 않고서는 독자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미흡한 글이 된다. 여기서 글의 스타일이란, 개별 문장을 구축하는 방식, 문장들의 길이, 문장들을 연결하는 방식, 단어와 구들 및 의미를 전달하는 음조 등의 혼합물이라 할 수 있다(Lannon, 2010).

IV. 읽기를 고려한 숫자 쓰기

대부분의 기술문에서 수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는 것이 좋다(Pfeiffer, 2010). (정영임, 2002)에서도 “문서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비-문자의 종류와 비율이 다르나,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일수록 이독성을 높이는 아라비아 숫자들의 사용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일보, 1992)

에서는 방송말이나 신문글에서, 숫자의 시각적 효과로 인한 수 개념의 빠른 이해를 목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무리하게 사용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한효석, 2008)에서는 “단순한 숫자를 비롯하여 낱짜, 연령, 연대 같은 숫자가 문장 중간에 끼이면 읽는 속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한다.” 게다가, (최천택, 1995)에서는 어떤 문장에서, 숫자를 눈에 보이는 대로 읽어서는 안 되고, 그 숫자가 문장에서 나타내는 뜻으로 숫자를 읽어야 한다면, 숫자로 인한 문장의 가독성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특히 기술문에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수 개념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아라비아 숫자를 많이 쓴다하더라도, 글의 이독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빠른 읽기와 신속한 이해를 고려한 스타일로 쓰기 위해서, 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할지 우리말 숫자를 써야할 지에 대해 따져야 한다. 즉, 우리말 숫자로 써야 하는 수까지도 아라비아 숫자로 써서 문장의 이독성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V. 수, 수사, 숫자, 단위명사

이제 수를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우리말 숫자로 써야 하는 규칙을 살펴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수(數)는 셀 수 있는 사물의 많고 적음. <숫자>의 준말. 자연수·정수·유리수·허수·복소수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숫자(數字)는 수를 나타내는 글자 [‘1·2·3·...’ 또는 ‘一·二·三·...’ 따위]이다. “숫자는 셈의 대상이 되는 실물을 직접 보여 주거나, 또는 계산 막대기나 손가락으로 개수를 표현하는 대신에 사용하는 기호”이다(채완, 2001).

아라비아 숫자: 0, 1, 2, 3,....

로마 숫자: I, II, III,....

한자 숫자: 一, 二, 三, 四,....

우리말 숫자: 하나(한), 둘(두), 셋(서, 석, 세), 넷(너, 네, 녁), 다섯, ..., 열....

수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명수법(命數法)과 기수법이 있는데, 명수법은 수에 각각 알기 쉬운 이름을 붙여 조직적으로 명명(命名)하는 방법으로, 0,1,...,9 및 십(열)·백·천을 기본으로 하고, 만·억·조·경을 보조로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기수법(記數法)은 수를 숫자(數字)로 나타내는 방법(새국어사전, 1998)이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는 수를 기수법으로 나타낸 것이고 ‘하나, 둘, 셋,... ; 一, 二, 三, ...; one, two, three,...’ 등은 명수법으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1 Arabic numerals, Chinese numerals, Korean sound, and Korean numerals

아라비아 숫자	한자 숫자	읽는 음	우리말 숫자
1	一	일	하나(한)
2	二	이	둘(두)
3	三	삼	셋(서, 세, 석)
4	四	사	넷(너, 네, 녍)
5	五	오	다섯
6	六	육	여섯
7	七	칠	일곱
8	八	팔	여덟
9	九	구	아홉
10	十	십	열

이 숫자들을 읽는 음과 우리말 숫자의 상관관계는 다음 Table 1로 정리할 수 있다(강영석, 1973). 이 표에서 우리말 숫자란, 아라비아 숫자나 한자 숫자를 뜻으로 읽는 음을 말한다.

수사(數詞, numeral)는 수와 관련된 개념을 표시하는 말, 즉,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다. 수사는 명사 대명사와 함께 문장에서 체언 구실을 하며,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로 나뉜다. ‘하나, 둘, 백, 첫째, 둘째, 제삼, 제오; one, two, first, second ...’ 등은 수사이고, ‘一, 二, 三, 四, ...’ 등은 수사인 동시에 숫자이다. 이들 중, ‘하나, 둘, 셋, ...’ 등은 고유어 계열 수사들로서 ‘아흔 아홉’까지만 있고, 수사 체계의 빈 곳은 한자어 수사들이 채운다. ‘一, 二, 三, 四, ...’ 등은 한자어 계열 수사들인데, 고유어 수사 체계의 빈 곳을 채우는 한편 그 자체로 국어 속에서 쓰인다(채완, 2001).

양수사(기(基)수사, 기본(基本)수사, cardinal number)는 ‘하나, 둘, 셋, 넷, ...; 一, 二, 三, 四, ...’들이고, 서수사(순서(順序)수사, ordinal number)는 ‘첫째, 둘째, ...; 第一, 第二, 第三, ...’들이다. 양수사의 기본형(예: 세, 네, 다섯, 여섯, 육, 십)은 특정한 분류사와 결합 관계에서 변이형(예: 서, 석, 너, 녍, 닷, 유, 시)을 갖는다.

數를 나타내는 단어를 數詞라 부르는 관점에서, 量을 나타내는 단어는 양사(量詞)라 부른다. “수사와 양사가 결합한 단위는 수량을 나타내므로 數量詞(句)라고 부른다”(강영석, 2009). 수량을 나타내는 방식은, 수량사 단독 방식과 수량사에 단위명사를 덧붙여 나타내는(단위성 의존 명사(남지순, 2006)) 방식, 두 가지가 있다(강영석, 2010). 의존 명사는 ‘자립성이 없어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이다. [분·것·데·바·듯·체·개·마리 따위.] 한글 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5절 두음법칙, 제11항에는, 의존 명사의 예로, 리(里)를 들었다: “몇 리냐?”

단위명사는 수사 뒤에서 계산 단위(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의 일종이다.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3항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라는 말이 있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죽, 집 한 채, 신 두 켤레, 북어 한 패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는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 시 삼십 분 오 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502호
제1어학실실실, 80원, 10개, 7미터

수량사와 결합하는 단위명사를 수량 단위명사라 부르기도 한다. 단위명사도 고유어계와 한자어계가 있으며, 근래에 와서는 외래어계 단위명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강영석, 2010). 고유어계 단위명사들은 한글 맞춤법 제43항에서 든 예들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개, 대, 돈, 마리, 벌, 살, 손, 자루, 죽, 채, 켤레, 패 등. 한자어계 단위명사에는 대, 시, 분, 초, 과, 년, 층, 동, 호, 등이 있고, 외래어계 단위명사는 미터,그램, 리터 등이다.

VI. 수를 우리말 숫자로 쓰는 규칙

(Chicago, 2003)에서는 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적을 것인지 아니면 영어 말로 적을 것인지를 가리는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 수가 큰지 작은지, 수가 어렵인지 정확한 것인지, 수가 어떤 사물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수가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등을 따졌다. 그에 따라, 71가지나 되는 세세한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 일관성(consistency)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한 것을 알 수 있다. 일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여러 예외들이 불가피하여, 가끔 이독성 다음으로 일관성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일관성에 대해서는 규칙 7에서 설명할 것이다.

1. 숫자는 음으로만 읽는다

숫자를 바르게 적기 위해서는 숫자를 읽는 규칙을 알아야

한다. “한자(漢字)는 그 음으로만 읽고 뜻으로는 읽지 아니한다. 외래어나 숫자도 역시 음으로만 읽고 뜻으로 읽지 아니한다.”(김영식, 1973)

‘숫자를 음으로 읽는다’는 것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와 한자 숫자를 ‘읽는 음’으로 읽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라비아 숫자 ‘704’를 음으로 읽으면 ‘칠백사’가 된다. 이 숫자가 문맥으로 보아 어떤 번호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칠공사’로 읽을지도 모른다.

‘숫자를 뜻으로 읽는다’는 것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와 한자 숫자를 ‘우리말 숫자’로 읽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부품을 가공하는 데는 공작기계 2대가 필요하다.’라는 문장에서, ‘공작기계 2대’를 ‘공작기계 이대’로 읽지 않고, ‘공작기계 두 대’로 읽는다. 이 때, ‘2’를 ‘두’로 읽는 것은 숫자 ‘2’를 뜻으로 읽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DVD 타이틀 지역 코드 변경 횟수가 5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설명서, 2007)에서 ‘5번’을 읽으면, ‘오번’이 된다. ‘오번’은 어떤 번호가 5번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표현이다. ‘5번’은 ‘다섯 번’으로 고쳐 써야 할 것이다. 아니면, ‘5번’ 대신 ‘5회’로 고쳐, ‘법적으로 DVD 타이틀 지역 코드 변경은 5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로 쓰는 것이 좋겠다.

아라비아 숫자는 음으로 읽어야 한다. 그래서 ‘숫자를 음으로만 읽는 원칙’에서 보면, 한자 숫자도 아라비아 숫자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한자 숫자를 써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숫자 적기의 관점에서 숫자는 우리말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 두 가지만 고려하면 된다.

약간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숫자를 음으로 읽는다는 규칙을 적용해서 ‘2.5천 톤의 값이 209백만 원’을 읽으면 ‘이 점 오천 톤의 값이 이백구백만 원’이 된다. 그러나 ‘2.5천 톤’이나 ‘209백만 원’으로 쓰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는다. ‘2500 톤의 값이 2억 900만 원’이라고 써야 한다(이성복, 2007).

2. 숫자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글자를 적는 관점에서, 말을 글자로 적을 때에 지켜야 하는 일정한 규칙이 맞춤법이다. 한글 맞춤법(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은 다음과 같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원칙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조건을 붙인 것이다. 즉,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조건을 붙인 것인데,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결

국 단어의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꽃(花)’이란 단어는 그 발음 형태가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꽃이’를 ‘꼬치’라고 소리를 내며 읽는다. 그렇다고 해서 ‘꽃이’를 ‘꼬치’로 적지는 않는다. 만약 ‘꼬치’로 적는다면, ‘꼬치’가 실질 형태소 ‘꽃’과 형식 형태소 ‘이’가 합쳐져서 된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글 읽기 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그래서 “음대로 ‘일, 이, 삼, 사, 오,...’로 읽을 수 있는 수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면 된다(한효석, 1995). 예를 들어, ‘삼십’이라고 소리 내어 또는 속으로 읽는 수는 그 수를 ‘삼십’ 또는 ‘30’이라 쓰면 된다. 그래서 ‘삼십 퍼센트’라고 읽는 것을, ‘30%’로 쓰는 것은 옳다.

여기서 ‘삼십 퍼센트’라고 읽을 것을 ‘삼십 퍼센트’나 ‘삼십 %’로 쓰면 어떤가? ‘30%’, ‘삼십 %’, ‘삼십 퍼센트’ 중, 어느 것으로 쓸 것인지는 글의 목적이나 서술의 패턴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기술문이라면 아라비아 숫자를 드러내어 ‘30%’로 쓰는 것이 ‘삼십 %’로 쓰는 것 보다 낫다.

3. 뜻으로 새겨 읽어야 하는 수는 우리말 숫자로 적는다

뜻으로 새겨 읽는 수는, 규칙 1에서 설명한 바처럼, 우리말 숫자로 읽는 수를 말한다. 이 규칙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규칙을 알아야 한다. “아라비아 숫자 뒤에 오는 단위명사가 고유어 계통이면 숫자는 음이 아닌 뜻으로 읽는다.”(한효석, 1995). 이 말은 ‘아라비아 숫자 뒤에 오는 단위명사가 고유어 계통이면 숫자는 우리말 숫자로 읽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21살’에서 ‘살’이 고유어 계통 단위명사이므로 그 앞의 숫자를, 음으로 ‘이십일’로 읽지 않고, 우리말 숫자로 ‘스물한 살’로 읽는다. 그러므로 ‘21살’의 숫자 ‘21’은 뜻으로 읽을 숫자이므로, ‘스물한 살’로 적어야 한다.

또 ‘3포기’는 ‘삼 포기’로 읽지 않고, ‘세 포기’로 읽는다. 그러므로 ‘3포기’로 쓰면 안 되고, ‘세 포기’로 적어야 한다. ‘3 포기’로 쓴 것을 눈이나 속으로 읽는 과정을 생각하면, ‘3’을 보고 숫자 ‘3’으로 인식한 다음 ‘3’을 ‘세’로 마음속으로 새긴 뒤 ‘3포기’의 의미를 이해한다. 이런 인식과 이해의 과정 중간에 또 다른 단계를 거치는 것은 읽기 속도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이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또 다른 규칙이 있다. 우리말에서 단위명사 ‘시’ 앞의 수사는 우리말 숫자로 읽고

‘분’ ‘초’ 앞의 수사는 아라비아 숫자로 읽는다(김광해, 1998). 그래서 예를 들어, ‘2시’는 ‘두 시’로 읽는다. 즉 ‘2’ 다음에 시각을 뜻하는 ‘시’가 결합하면 ‘2’를 음으로 읽지 않고, 뜻 ‘두’로 읽는다. 한글 맞춤법 제43항에서 ‘두 시 삼십 분 오 초’를 볼 수 있다. 이 문제로 인해 국어의 수사 용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을 (강영석, 2009)에서 볼 수 있다.

4. 결합하는 단위명사가 고유어 계통이면 수를 우리말 숫자로 쓴다

이 규칙은 규칙 3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수사 관련 논문 등에서 공통적으로 진술되는 것이다. 고유어 계통 단위명사의 예들은 ‘수, 숫자, 수사, 단위명사’ 절에서, 한글 맞춤법 제 43항에 있는 것들을 포함하여 열거하였다.

그런데 이 규칙에서 비켜나 있는 것들이 무척이나 많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명(名), 시(時), 개(個), 시간(時間) 등은 한자어 단위명사인데도, 고유어 수사, 즉 우리말 숫자와 결합한다. 또, ‘분(分 vs. 分), 대(대, 臺 vs. 代), 기(基 vs. 期)’와 같은 동형이어의, ‘동, 층, 페이지’ 및 ‘평’ 등과 같은 단위명사들에 대해서는 고유어 수사나 한자어 수사가 모두 사용된다(정영임, 2002).

5. 고유어 단위명사와 결합하더라도 10 이상의 수는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강영석(2010)은 “작은 수를 나타내는 한자어 수사가 고유어 단위명사와 결합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한자리 수가 고유어 단위명사와 결합하는 때는 우리말 숫자로 쓰고, 두 자리 이상의 수가 고유어 단위명사와 결합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그런데 그 두 자리 수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두 자리 수가 채완(1983)에서는 10이라고 하고, 유재원(1997)에서는 20이라고 한다.

또 20과 100 사이의 수가 고유어 단위명사와 결합하는 때에는 우리말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모두 써도 된다고 한다(유재원, 1997). 100 이상의 수에 대해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써야(유재원, 1997) 하는데, 그 때에도 만약 1자리수가 1에서 9까지 수이면, 그 수를 우리말 숫자로 쓰는(채완, 1983)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한다.

“하지만 언어 규범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수의 크기에 따른 수사의 교체 현상을 인정하지 않아,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의 선호도는 개인의 차가 매우 커 일반화된 규칙으로 설정하기 힘들다”고 한다(정영임, 2002).

참고로 (Chicago, 2003)에 의하면, 영어에서는, 비기술적인 글에서, 길이, 거리, 면적 등과 같은 물리적인 량들을 나타내는 1에서 100까지 수는 모두 영어로 쓴다. 그렇지만, 과학이나 재정 관련 것들을 포함하는, 많은 출판물에서는 1에서 9까지 수만을 영어로 쓰고, 10 이상의 수들은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고 한다.

6. 외래어 단위명사와 결합하는 수사는 우리말 숫자로 쓰지 않는다

한글 맞춤법 제43항 예에서 보는 ‘7미터’ 외에, 20톤, 25% 등처럼, 외래어 계통 단위명사와 결합하는 수는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7. 숫자 쓰기의 일관성

어떤 단락 또는 이어지는 문장들에서 숫자를 많이 쓰는 경우에, 일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 문장이나 같은 단락에서 같은 사물의 수를 여러 곳에서 여러 다른 수로 적는다면, 그 모두를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것이 낫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기술한 규칙에 따라, 한 문장이나 같은 단락에서 어떤 단위명사와 결합하는 수사에 대해서 아라비아 숫자를 써야 한다면, 일관성을 고려하여, 그 단위명사와 결합하는 수사를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하지만 다른 단위명사와 결합하는 다른 수들은 우리말 숫자를 쓰도 된다.

예를 들어, “한 시간 이상의 작업을 할 경우 50분 작업 후 약 1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하세요.”(설명서, 2007)에서 ‘한 시간’에서 ‘1’ 대신 ‘한’으로 쓴 것은 지금까지 제시한 규칙들에 맞게 한 것이다. 그러나 ‘한 시간’, ‘50분’, ‘10분’ 세 개 모두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일관성을 적용하여 ‘1시간 이상의 작업을 할 경우 50분 작업 후 약 1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하세요.’로 쓰는 것이 낫다. 곧, 한 문장이나 같은 단락에서 같은 사물에 대해 여러 다른 수를 쓰는 경우에, 어느 한 숫자라도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한다면, 몇 개의 수를 우리말 숫자로 쓰기보다,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한다.

또 규칙 3에서 언급한 예이지만, 숫자 쓰기의 일관성의 관점에서 ‘두 시 30분 5초’ 대신 ‘2시 30분 5초’라고 쓰는 것을 수긍할 수 있다. 시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30’과 ‘5’라는 숫자 둘을 써야 하므로, ‘두 시 삼십 분 오 초’ 보다 ‘2시 30분 5초’로 쓰는 것이 이독성 측면에서 낫다.

정각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는 ‘시’ 앞의 숫자는 항상 우리말 숫자로 적는다. 예를 들어, ‘여섯 시 정각.’ 정시를 나타내는

‘8시’ 보다, ‘여덟 시’로 읽으니 ‘여덟 시’로 적는 것이 좋겠다. 30분 단위의 경우, ‘열 시 반’으로 쓰거나 ‘10시 30분’으로 써야 한다.

8. 규칙 적용의 유연성

영어의 개별 문장에서, 가장 큰 수가 9를 넘으면, 유연성을 적용하여, 그 문장의 수는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쓰기를 권하기도 한다(Lay, 1982). 이것도 이독성을 고려한 규칙이다.

예를 들어, ‘서론을 포함한 여덟 개 항목에 대해 71가지 규칙이 다양한 예들과 함께 설명돼 있다.’ 라는 문장에서, ‘여덟 개’의 ‘개’와 ‘71가지’의 ‘가지’는 다른 단위명사이기 때문에, ‘여덟 개’와 ‘71가지’로 쓸 수 있다. 그렇지만, 유연성을 고려하여, ‘서론을 포함한 8개 항목에 대해 71가지 규칙이 다양한 예들과 함께 설명돼 있다.’로 쓰는 것이 좋겠다. 이 경우에, 규칙 5에 의해, ‘71’은 10보다 큰 수여서, 아라비아 숫자로 쓴 것이다.

그렇지만, 유연성을 과도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다음 예문(조선일보 2010년 10월 6일 수요일, 52판 ⑤, A1면)을 보자.

... 5일 서울시가 재래시장 2곳에서 시중가보다 30% 싼 가격(3포기에 1만4000~1만8000원)으로 7860포기의 배추를 공급했다. ...

이 예문에는 여섯 가지 단위명사들과 함께 일곱 개의 숫자가 써여 있다. 이 문장에 유연성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규칙 1과 2를 여기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쓰는 것이 좋겠다.

... 5일 서울시가 재래시장 두 곳에서 시중가보다 30% 싼 가

격(세 포기에 1만4000~1만8000원)으로 7860포기의 배추를 공급했다. ...

지금까지 제시한 규칙들을 Table 2에 정리한다.

VII. 토 의

(김광해, 1998)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 아라비아 숫자의 자리에 우리말 숫자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기가 어려워, 그에 대한 관습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씌어진 숫자를 디지털 자료로 전환하는데 있어서는 그에 대한, 구속력이 약한, 규칙들마저도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의 본론에서, 기술문의 특성을 살리는 글에서 아라비아 숫자와 우리말 숫자를 가려 쓰기 위해서, 읽기 좋은 글의 특성에 비추어 문자들 속에 적힌 숫자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아라비아 숫자 자리에 우리말 숫자를 써야 하는 배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용어들을 살펴본 뒤, 여덟 가지 규칙을 정리하였다. 그것들은 새로 밝혀낸 것들이 아니고,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규칙들의 순서는 어느 정도의 우선 개념으로 정했다. 여덟 가지 중, 1, 2번 규칙은 지켜야 할 원칙이다. 3, 4번 규칙은 서로 짝을 이룬다할 수 있는데, 고유어 계통 단위명사와 결합하는 수는 대체로 뜻으로 새겨 읽기 때문이다. 그러나 3번 규칙은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4번 규칙에 대해서는 여러 예외들이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5번 규칙은, 큰 수를 우리말 숫자로 적으면 글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글 맞춤법 제44항에 다음과 같은 두 숫자가 적혀 있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과 ‘12억 3456만 7898’는 같은 수인데, 우리말로 풀어서 적은 것은 아라비아 숫자로 적은 것에 비해 훨씬 길기도 하지만, 첫 번 것을 얼핏 보면 수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될 지도 모른다.

7번과 8번 규칙은 이독성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히 적용하면, 수 개념의 신속한 인식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단순히 (남지순, 2006)에 그 개념이 기술된 단위명사와 결합하는 수사에 적용할 규칙들을 생각하였다.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서 (채완, 1990)이나 (남지순, 2006)에서와 같이, 수사와 관련된 명사나 단위명사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부류로 나누어, 그런 부류들에 대해서 수사를 어떻게 적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남지순, 2006)에서는 단위명사를 전체 12개 클래스로 하위분류하고 “동반

Table 2 Rules for writing Korean numerals instead of Arabic numerals

1	숫자는 음으로만 읽는다.
2	숫자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3	뜻으로 새겨 읽어야 하는 수는 우리말 숫자로 적는다.
4	결합하는 단위명사가 고유어 계통이면 수를 우리말 숫자로 쓴다.
5	고유어 단위명사와 결합하더라도 10 이상의 수는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6	외래어 단위명사와 결합하는 수는 우리말 숫자로 쓰지 않는다.
7	숫자 쓰기의 일관성
8	숫자 쓰기의 유연성

된 핵어명사의 의미적 특징"에 따라 네 가지 대범주로 나누었는데, 그 중 하나는 "측량 가능" 범주이다. (채완, 1990)에는 기계·기구류에 관련된 분류사 부류가 있다.

이제 서론 첫 부분의 [예문]에 이런 규칙들을 반영하여 고쳐 쓰면 다음과 같이 된다.

지금은 80톤과 110톤, 두 대의 프레스로 두 사람이 압인과 압힘 작업을 따로 한다. 그렇지만 둘 다 프레스에 의한 작업이기 때문에, 순차이송 다이 세트를 이용하는 한 대의 트랜스퍼 프레스로 두 공정을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쓴다면, 독자가 글을 훑어 볼 때 두 번째 문장의 수 관련 내용을 지나칠 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예문]은 시각적인 효과에 의해 수 개념의 이해를 빠르게 하려는 의도로 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두 대'로 읽는 것을 '2대'로 써 놓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써야 한다.

여기서 새로운 규칙 거리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문장 첫머리를 아라비아 숫자로 적는 것과 우리말 숫자로 적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과 관련한 논의를 다른데서는 본 적이 없지만, 영어에서는 문장을 시작하는 수는 낱말로 풀어서 적는다. 그 규칙은 (Chicago, 2003)에서, 일관성과 이독성이 가장 먼저 설명된 뒤, 다섯 번째로 설명돼 있다. 영어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필자는 모르는데, 혹 단지 습관에 의한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읽기를 위한 중요 고려 사항이라면 우리 글쓰기에서도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이 문제는, 문장에서 어순을 바꾸거나 말을 바꾸어 쓰면 피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VIII. 결 론

글과 말이 일치하도록 아라비아 숫자와 우리말 숫자를 가려 써서, 읽기의 효율성이 높은 기술문을 쓰는 관점에서, 아라비아 숫자 자리에 우리말 숫자를 써야 하는 규칙 여덟 가지를 정리하였다. 숫자는 음으로 읽고, 읽는 대로 적어야 하므로, 뜻으로 새겨 읽어야 하는 수는 우리말 숫자로 적어야 한다. 고유어 계통 단위명사와 결합하는 10 미만의 숫자는 대체로 우리말 숫자로 쓰고, 외래어 계통 단위명사 앞에는 우리말 숫자를 쓰지 않는다. 이런 규칙들은 일관성과 유연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숫자가 많이 적혀 있는 글을 더 빨리 읽고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제시한 여덟 가지 규칙이 효용

이 있기를 기대한다.

공대 글쓰기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 여러 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요즈음, 아라비아 숫자와 우리말 숫자를 가려 씀으로써 더 나은 기술문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생산하고자 했다. 다양한 단위명사들에 건주어 두루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을 확정할 수 없고 여러 예외들이 있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글쓰기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학이나 과학 기술계에서 공통적으로 또는 특정 기술 분야에서 많이 쓰일 법한 단위명사들과 결합하는 여러 형태의 수들을 어떤 숫자로 써야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거리가 될 것이다.

IX. 요 약

아라비아 숫자를 읽을 때 글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아라비아 숫자를 읽는 기준이 확실치 않아, 숫자가 놓인 위치, 단위명사, 수의 크기, 구성요소들 간의 결합관계, 문맥 등에 따라 숫자를 다양하게 읽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더 읽기 좋은 기술문을 쓰는 관점에서, 수사, 분류사 및 수량 단위명사와 관련한 연구 자료들을 조사하여, 아라비아 숫자 자리에 우리말 숫자를 적어야 하는 여덟 가지 규칙을 정리하였다.

주제어: 수사, 아라비아 숫자, 우리말 숫자, 단위명사, 기술문

참고문헌

1. 강영석 (2009). 국어의 수량 표현 문법 I, 인문학지, **충북대학교**, Vol. 39, 2009. 12. pp. 25-45.
2. 강영석(2010). **국어의 수량 단위명사에 관한 연구**, <http://kang.chungbuk.ac.kr/zbxe/10353>.
3. 권성규(2010). **2010 추계 공학교육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공학교육학회, 2010. 11. 11-12. pp. 397-400.
4. 김광해(1998). **국어 수사의 발달**.
5. http://kang.chungbuk.ac.kr/zbxe/nonmun_data.
6. 김영식(1973). 국어표기에 있어서 산용숫자처리의 문제, **새국어교육**, 16: 10-15.
7. 남지순(2006). 수량표현 명사구의 자동 불·한 번역을 위한 한국어 단위명사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54: 28.
8. 설명서(2007). **SAMSUNG Computer 문제해결 설명서**, 2007 삼성전자주식회사.
9. 유재원(1997). 자연어 처리를 위한 의존 명사 하위 범주 분류,

-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1997년 제9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pp. 136-142.
10. 이기문 감수(1989). *동아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1. 이성복(2007). *한국어 맛이 나는 쉬운 문장*, 세창미디어.
 12. 이인석 외(2009). 한글과 숫자 낱글자의 가독성에 미치는 주요 요인 평가, *대한인간공학회지*, 28(4)1-7.
 13. 정영임 외(2002). 현대 한국어에서 아리비안 숫자의 읽기 규칙 연구,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학술발표 논문집*, 2002년 제14회 한글 및 한국어정보처리 학술대회, pp. 16-23.
 14. 조룡수(1992). 조선어문교수에서의 수자읽기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루계59호, pp. 56-58.
 15. 조선일보(1992). 1992년 11월 22일, 30판.
 16. 채행석 외(2009). IPTV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인지적·물리적 가독성 요소 연구, *디자인학연구*, 81: 91-109.
 17. 최천택(1995). Readability : Theory and Application, *한신 논문집*, 12: 311-348.
 18. *표준국어대사전*(1990). 한영출판사.
 19. 한효석(2008). *이렇게 해야 바로 쓴다*, 증보판, 한겨레출판.
 20. Lannon, John M.(2010). *Technical Communication*, 11th Edition, Pearson Longman.
 21. Lay, Mary M.(1982). *Strategies for Technical Writing, A Rhetoric with Readings*, Holt, Rinehart and Winston.
 22. Markel, Michael H.(1988). *Technical Writing Situations and Strategies*, 2nd Edition, St. Martin's Press Inc.
 23. Pfeiffer, William S.(2010). *Technical Communication: A Practical Approach*. 7th Edition, Pearson Prentice-Hall.
 24. Riordan, Daniel G. and Pauley, Steven E.(2002). *Technical Report Writing Today*. 8th Edition. Houghton Mifflin Company.
 25. Sheehan, Richard Johnson-. (2010). *Technical Communication Today*, 3rd Edition, Longman.
 26. *The Chicago Manual of Style*, (2003). 15th E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379-397.
 27. *The World Book Encyclopedia*, (1990). Q·R, Volume 16, World Book, Inc.



권성규 (Kwon, Sunggyu)

1980년: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졸업
 1990년: Louisiana 주립대학교 기계공학과 PhD.
 1991년: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1995년~현재: 계명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

Phone: 053-580-5231, 010-3189-5231

Fax: 053-580-6725

E-mail: cmack@kmu.ac.kr